

# The-K

## The-K Issue

The-K호텔 롱스테이

##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송이호 파주 새얼학교 교사

## Interview

방송인 타일러 라쉬



Monthly Magazine

June 2019

Vol.22

# CONTENTS

2019 JUNE VOL.22



# The-K

VOL.22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4  
여는 글  
우리 사이의 모든 것

6  
Essay  
모란 돌에 정 때리지 않기  
황선미 동화작가

8  
Interview  
진심과 기여가 담긴 집  
타일러 라쉬

14  
Interview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  
송이호 파주 새얼학교 교사

20  
아름다운 동행  
하루하루가 축복인 우리의 인연  
차임란 대구포산초 상담복지사 가족

26  
만 나라 교육 편지  
보츠와나에 와보면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빈 대전용전초 교사

30  
트렌드 GO GO  
SNS를 청정하게! 트래시태그 챌린지

32  
행복 만들기  
그때 그 시절의 보물  
대한민속놀이연구회

36  
네오필리아  
떠나오, 팔도강산 자전거 길로

38  
브랜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⑩  
파리, 다시 처음의 우리로

44  
꿈꿀 공간  
아이들의 꿈을 담는 창의 공간  
대구 유가중학교

48  
The-K Project  
장애인 교원의 행복한 가르침을 위하여!  
2019 무장애교실 프로젝트

50  
The-K Issue  
The-K호텔 룽스테이  
지리산·설악산·경주 호텔

52  
The-K Focus  
야구가 있어 인생이 즐겁다!  
The-K행복서비스 프로야구 즐기기

56  
The-K Lounge  
스승의 날 기념 공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선생님

58  
The-K Family  
예를 다해 온 정성으로 마지막 길을 모십니다  
The-K예다함상조

61  
독자 이벤트  
6월 즉석당첨 이벤트

62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9년 6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성미 이경희 강나은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국순호 ksh@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이성원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 우리 사이의

# 모든 것

한 치 앞을 모를 내일에  
계절의 달라짐을 느끼는 것은 사치일까요.

깊은 밤 기쁨 창문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귀 기울이면  
어느새 다른 내음이 다가옵니다.

안녕, 봄과 여름 사이의 것들  
다만 계절이 달라져도 온기가 달라져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단순하고 선명한 단 하나의 기적  
그저 당신이 우리 곁에 있음을 느끼는 것

안녕, 오래 곁에 머물 당신  
손을 잡아주세요, 사이사이마다 닿을 수 있도록  
쓰다듬어주세요, 온고롱한 빗처럼  
안아주세요, 마냥 좋은 날처럼

당신과 우리 사이, 깊고 진한 현실과 환상 속에서  
오늘의 순간을 흘러보내지 않도록  
찬연한 계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 모난 돌에 정 때리지 않기

글 황선미(동화작가)



나는 나의 미술 선생님이 대해 말한 적이 없다. 사범대를 졸업하자마자 중소 도시에 있는 우리 학교에 오신 분. 쇼트커트 스타일에 인형처럼 예쁜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질감을 불러일으켰다. 책만 파느라 모양 낼 처지도 아니고, 운동 부족으로 배마져 불룩했던 우리는 그렇게 날씬하고 예쁘기까지 한 선생님이 마땅찮았다. 혀 짧은 스타카토 말투도, 우리와 눈을 맞추지 않고 잠시 생각에 빠지는 듯한 태도도 애들은 트집을 잡았다. 선생님과 우리가 고작 네댓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사실도 트집거리었다.

그러다 애들이 발끈할 일이 생겼다. 선생님이 유화 도구를 준비하라고 하신 거다. 반장이 정색을 하고 나섰다.

“선생님, 우리 고3이에요. 체육 시간도 음악 시간도 입시 준비하라고 내주시는데 유화라니요.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게다가 유화 도구는 싸지도 않잖아요.”

선생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잠자코 듣던 선생님이 일정한 톤으로 대답했다.

“나는 미술 수업을 할 거야. 유화 도구를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한테 오면 돼.”

애들의 원성은 다음 미술 시간까지 그칠 줄 몰랐다.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다고. 이 가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입을 모아 투덜대면서도 애들은 유화 도구를 준비했다. 혹시라도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 봐.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구경만 했다. 짐짓 짜증내는 애들 편에 있기는 했지만 솔직히 내 사정은 좀 달랐다. 대학 진학이 어려운 상황부터가 그랬다. 그러니까 내 반감은 선생님이 가까운 시간을 잡아먹어서가 아니라 비싼 유화 도구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형편 탓이었다. 나는 뒤에서 욕도 하지 못했고, 가난한 엄마 주머니를 쥐어짜지도 못했다.

당시 나는 모난 돌 같은 애였다. 누구한테라도 잘못 걸리면 툭 꺾어버리고 말 위태로운 상태. 유화 도구를 준비하지 못하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건 대학 갈 처지도 아닌 마당에 학교 따위 당장 그만뒀도 상관없다는 오기 비슷한 감정이었다.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갔다. 마치 애들을 대표해 오기라도 한 것처럼 자존심에 갑옷을 두르고 자, 나 같은 애를 어찌시겠느냐는 듯 고개를 뺏뺏이 들고.

“저는 유화 도구 준비 못하는데요.”

선생님은 내게 등을 보인 채 잡자고 앉아 계셨다. 그러더니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여셨다. 순간 와락 부끄러움이 일었다. 거기에는 작은 유화 물감과 팔레트, 기름, 붓까지 나란히 들어 있었다. 예닐곱 명쯤 올 것으로 예상하셨는지 여러 세트가 준비돼 있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꾀잡도 못 했다.

선생님 책상에는 거울이 있었고, 선생님은 그걸로 나를 보고 계셨다. 나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다는 듯. 나는 단박에 알았다. 센 사람이다.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

선생님에게 얻은 것들로 나는 잡지책 속 그림을 흉내 냈다. 선생님은 내 그림을 지나쳤고, 나는 또 한 번 부끄러웠다.

선생님이 나를 칭찬한 적은 없었다. 그냥 웃어주거나 말을 걸었다. 혀 짧은 소리로 농담도 하셨다. “순미야, 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너무 무거워.”

그 선생님은 내 친구이자 예술가였다. 모난 돌을 아껴주는 어른이었다.



### 황선미 동화작가

섬세한 감각과 온기로 마음에 작은 씨앗을 틔운다. 어린 시절 혼자 학교에 남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캄캄해질 때까지 동화책을 읽곤 했다. 1995년 단편 <구슬아, 구슬아>로 아동문학평론 신인문학상을, 중편 <마음에 심는 꽃>으로 농민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섰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런던 도서전 '오늘의 작가'에 선정되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수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 진심과 기여가 담긴 집

### 타일러 라쉬

고전학자 김동훈은 “언어에는 ‘가능성(potential)을 실현(actualization)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다. 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인류 역사는 언어의 위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숭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남겨왔다. 현대에 이르러 언어는 첨단 기술과 함께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타일러 라쉬 역시 그 힘의 수혜자이다. 한국인의 마음까지 설득하고 있는 그가 가진 힘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는 언어에 있었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Tyler Rasch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일러 라쉬가 간결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출신, 직업 등 어떤 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인사. 간결함은 타일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몇 개의 고유명사로 자신의 이미지가 고착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숲에서 뛰어놀던 어린 타일러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유로운 생각과 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근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인 타일러가 대중을 사로잡은 것은 JTBC <비정상회담>을 통해서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패널들 속에서 그의 ‘힘’은 단연 돋보였다.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 줄기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논쟁의 핵심을 적절히 짚었다. 유창한 한국어로 이성적 생각을 사유하는 타일러를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토론의 생산성과 즐거움을 널리 전파한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스스로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제가 자란 버몬트주는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곳이었어요. 친구들과 개구리를 잡고 숲속에서 작은 동물을 따라다니고 흙을 파며 놀았죠. 집에서 놀 때는 박스 안 레고를 거실 중간에 통째로 쏟아놓고 친구들과 각자 만 들고 싶은 걸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내가 뭘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시면 설명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머릿속 상상을 밖으로 꺼내며 놀던 시절이었다. 천동벌거숭이처럼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사립학교에 진학했다. 미국에서 사립학교는 한국과 아주 다르다. 주립학교처럼 공교육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소 규모로 매우 독자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의 어떤 관여도 없이 학교만의 색과 전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농업이 매우 중요하던 1935년에 생긴 학교예요.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음악·연극·미술 등 다들 자기가 원하는 예술 활동을 했죠. 학교의 기반이 농업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목장 일이나 학생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등 반드시 일도 해야 했어요. 빠지면 징계를 받았죠.”

교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다. 학생들이 이 모든 걸 제대로 해내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업무였다. 교사들은 중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성적 대신 장문의 피드백을 주었다. ‘토론은 잘하는데 에세이가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써봐라’ ‘네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더 줄여봐라’ 등 학생 개개인마다 다른 맞춤형 피드백이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책임져야 하는 것과 챙겨 해야 하는 공부가 있다는 것을 고교 시절에 터득했어요. 지금 제 자신을 형성하는데 그 시간이 큰 영향을 준 거죠.”

그의 인생관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깨닫고 배움의 태도를 익힌 시간이었다.

**기여와 진심이 중요하다**

타일러는 지금도 관심 없는 분야보다 좋아하는 일에 더 집

중한다. “미국에서는 2027년이 되면 일하는 인구의 75%가 프리랜서 직군일 것”이라는 말에도 무섭지 않다.

“틀에 맞춰진 교육을 받거나 공채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에겐 이런 미래가 무서울 수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유연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고교 시절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러는 스승을 위대한 존재라고 말한다. 지식을 잘 가르쳐준 선생님보다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제가 감사드리는 선생님은 진심을 담아 제 인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신실한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은 가슴에 남는 선생님을 원



*“틀에 맞춰진 교육을 받거나 공채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에겐 이런 미래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유연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고교 시절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

토론에서 질문할 때 바보처럼 보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궁금한 걸 묻고 ‘기여’와 ‘진심’ 이 두 가지를 챙기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아이의 인생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처럼요.”

더불어 자신의 삶에서 ‘토론’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교육과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세계관, 관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설득시키는 것은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토론이란 나의 관점이나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작업이잖아요. 토론은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유용한 스킬이에요. 대인관계를 비롯해 영업, 면접, 지금의 인터뷰까지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어려워하는 학생들과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한국의 교육은 그를 안타깝게 만든다. 시의 해석을 정해놓고 외워서 시험을 보는 한국식 교육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한 부분이다.

“서울대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들은 여러 학자가 내놓은 각기 다른 이론을 소화해 유기체로 고민하고 토론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성적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읽은 것만 내뱉지, 읽은 것을 소화하고 나만의 견해를 덧붙여 진짜 토론하는 학생들이 적었어요. 여기서 하나, 토론에서 질문할 때 바보처럼 보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궁금한 걸 묻고 ‘기여’와 ‘진심’ 이 두 가지를 챙기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이가 이야기 책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주인공의 행동을 마음대로 해석해 서로 이야기해보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어린 시절 레고와 함께 초목에서 뛰어놀던 타일러가 보였다.

####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대한민국 거주 8년 차, 타일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외국인이기에 실례가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그가 요즘 공들이고 있는 ‘진짜 미국식 영어’는 한국식 영어 교육에 대한 아쉬움에서 출발했다. 대부분

영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이 하는 걱정인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상에서는 왜 말이 나오질 않을까’라는 의문에 답을 주고 싶었다.

“제과를 배울 때 단팥빵 조리법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완벽한 단팥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단팥빵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밀가루, 우유, 달걀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어봐야 빵, 쿠키, 팬케이크 차이를 짐작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하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리에서 만나는 외국인과 대화할 때는 정작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지금과 달라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타일러의 영어는 밀가루, 우유, 달걀을 주는 것이다. 진짜 미국식 영어를 알려주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을 말해준다. 문법적으로 틀려도 된다. 현지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맥락을 제공하고 알려주면, 학습자는 자신에게 맞는 표현을 고른다. 그렇게 자신만의 표현으로 습득하는 것. 이것이 타일러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미국식 영어다. 그의 영어 교육은 이미 사람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타일러는 영어 교육과 함께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돕는 t.table 컨설팅 회사를 창업한 것이다.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과 지원을 하는 이 회사는 타일러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모험이다.

“마케팅에 관심을 둔 뒤부터 애널리틱스, 웹사이트 등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바로 준비하고 공부해 관심사를 따라가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대로 길을 걷다 보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타일러의 삶에서 배움은 언제나 함께하는 여정이자 수단이다. 스스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교육에 진심이 필요함을 더욱 믿게 됐다는 타일러 라쉬.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인물이었다.

## 이제 아무도 울지 않는다

— 송이호 파주 새얼학교 교사 —

학교 가는 길, 어머니 등에 업힌 소년은 울며 기도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장애 때문에 교사가 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장사할 때도 청년은 울며 기도했다.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함 끝에 교사가 된 그는 이제 울지 않는다.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기에 하루도 웃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늘도 그는 기도한다.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세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자, 송이호 파주 새얼학교 교사의 기도에는 이제 아이들만 있다.  
글 이성미 사진 한상무





#### 고개 넘고 울타리 넘어 교사가 되다

새얼학교의 봄빛은 찬란하다.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꽃이 고 새잎이다. 살짝 고개를 숙이면, 낮선 이를 만나도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들이 보인다. 꽃보다 고운 아이들의 웃음이 보인다. 송이호 교사를 찾자 손가락이 모두 한곳을 향한다. 똑똑한 아이들이다.

새얼학교는 경기도 파주시에 자리한 특수학교로, 유치부와 초·중·고등부, 전공과 학생들이 어우러져 생활한다. 송이호 교사는 이곳에서 전공과 교사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0년도부터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20년간 성심을 다한 교직 생활의 점수표라고 생각해요. 이제 자녀와 학생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인정받는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사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받았지만 그가 ‘교사’라는 직함을 얻기까지는 뭐 하나 순탄한 것이 없었다. 그가 가진 장애 때문이었다.

송이호 교사는 돌이 되기 전 소아마비를 앓았다. 이후 걷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는 아들을 업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등하교를 함께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대신 고개를 넘으며, 어머니는 등 뒤 아들을 향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면 좋을 텐디, 다리가 이래서 어짜쓰까?” 그러면 아들은 자신 있게 외쳤다. “못할 것 있나요? 해볼라요!” 어머니의 바람대로 송이호 교사는 광주의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해 교사의 꿈에 한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넘어야 할 울타리는 또 있었다.

“당시만 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느냐’는 편견이 있었어요.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죠. 면접 후 목발을 짚고 나오면서 제 이력서를 휴지통에 버리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사는 동안 어머니는 그에게 언제나 흔쾌히 당신의 등을 내어주었다. 또 친구들은 항상 가방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에게 교사 자리를 내어주는 곳은 없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언제까지고 면접장을 오갈 수만은 없었다. 결국 친구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길거리에서 장사를 했다. 그러면서도 결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 학교로 갈 것이라 믿었다.

“어느 날 장애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어요.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선배가 ‘새얼학교에 근무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했고, 2000년도부터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 무대 위에 올린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꿈

교사가 된 후의 삶은 꿈만 같았다. 어머니의 등에서 날마다 꾸던 꿈이었다. 그러나 달콤함에 취해 있지만은 않았다. 자신이 교사가 되기까지 넘어야 했던 문턱을 이제 제자들이 넘어야 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뼈저리게 경험한 그였다.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춰 교육법을 연구하고,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한 시도 쉬지 않았다.

송이호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개발한 맞춤 교육법 중 하나는 ‘인형극’이다. 인형극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치료와



재난 대응 교육, 사회 적응 훈련을 함께하는 것. 지금 학생들은 화재 예방을 주제로 인형극을 준비하고 있다. 대본을 읽으며 학생들은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보세요? 여기 OO아파트 OO동 OO호예요.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더 다급한 목소리로 해야지. 실제로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 주소도 또박또박 불러줘야 소방관이 화재 장소로 잘 찾아올 수 있지.”

송이호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음을 교정해주고, 연기를 지도한다.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한바탕 대본 연습을 끝낸 학생들은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오겠다고 열의를 보인다.

“교회에서 인형극을 했는데 아이, 어른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극단 ‘끼’를 창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가 주축인 모임이었는데도 수업과 병행해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형극에 치료 목적을 더해 학생들과 함께 해보자 했지요. 지금은 아이들이 무대 꾸미기, 인형 만들기, 대본 쓰기 등 전 과정을 함께 해요. 아이들이 배우이자 스텝이 되고요. 물론 아이들의 힘만으로 하기에 어려운 건 교사들이 도움을 주지만, 무대는 온전히 아이들의 것이에요.”

현재 극단 멤버는 총 15명. 이 중 장애 때문에 인형극에서 배제되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과 학교 밖 사람들에게 공연을 선보인다.

“인형극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아이들은 소외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새얼학교 교사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밖에 없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목공 등 각 분야에서 학생들을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선 교사가 먼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배드민



나뭇가지 끝에 모여 피는 꽃, 땅 위 가느다란

줄기 끝에 고개 숙여 피는 꽃,

우거진 덩굴 속에서 피어나는 꽃, 태어난 환경, 색깔, 모양, 향기

그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꽃은 없다.

턴, 배구, 휠체어 야구 등을 지도하기 위해 먼저 운동을 배우기도 한다. 송이호 교사도 마찬가지. 그는 아이들을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모전에 나가고, 운동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동료 교사들에게 전한다. 새얼학교 전 공과에서 함께 일하는 김숙희 교사는 송이호 교사에 대해 “배울 것이 많은 분”이라고 말한다.

“옆에서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거든요. 물론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하던 걸 계속 밀고 나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송 선생님은 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자기계발도 꾸준히 하세요.”

송이호 교사가 맡은 반의 급훈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이다. 더불어 살자고 아무리 말해도 쉽게 외면하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다. 하지만 차별이 서러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보통 사람들 속으로 들어야 한다.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그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를 외친다.

“태어나 천국에 갈 때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단계만 잘 거친다면, 장애인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학생들을 도와 체계적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특수교사이고요. 앞으로 복지 제도가 더 잘 갖춰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면 장애 학생도 사회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길 바라는 게 모든 특수교사의 마음이고요.”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취업하면 선생님하고 뭐 하기로 했지?”라고 물으니 약속이라도 한 듯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감자탕에 소주 한잔!”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함께 만든 인형극 무대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인 선생님을 떠올리며 두고두고 행복해할 것이다.

“오래전 취업한 친구가 졸업식 때 양말 세 켤레를 들고 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아직도 그 양말을 신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교사라는 자리에 오기까지는 분명 힘들었지만, 교사가 되고 보니 이 자리가 제자리라는 것을 더욱 여실하게 느껴요.”

고마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감자탕에 소주 한잔’을 꿈꿀 줄 알고, 자신을 경계하는 눈빛조차 잘 아는 학생들. 장애 학생이라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뭇가지 끝에 모여 피는 꽃, 땅 위 가느다란 줄기 끝에 고개 숙여 피는 꽃, 우거진 덩굴 속에서 피는 꽃. 태어난 환경, 색깔, 모양, 향기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꽃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꽃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

꽃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사람! 생김새가 어떠한 걸 음걸이가 어떠한 우리는 사람이기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태우, 현웅이, 준송이, 영석이, 수빈이, 민경이. 이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한 명도 소외시키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러면 그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



매순간이 아름다워  
하루하루가 축복인

우리의 인연

**차임란**

대구포산초 상담복지사 가족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3000번 이상의 연(緣)이 닿은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가족으로 엮이는 연은 전생에 얼마만큼의 인연을 쌓아야 하는  
것일까. 따뜻한 봄을 지나 푸름이 솟아나는 경북 경주에서 만난  
차임란 상담복지사 가족은 단언컨대 '좋은 인연'이 돋보이는 이들이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인연의 시작**

경북 경주는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벚꽃이 물러가고 이팝나무와 철쭉이 채운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우리뿐일까. 사방을 둘러봐도 새삼스럽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눈부시니 가족 여행지로서 경주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듯했다.

차임란 대구포산초 상담복지사 가족과 첫 대면을 하기로 한 곳은 경주의 상징과도 같은 침성대 앞. 벤치에 앉아 오물오물 아침을 먹고 있는 은수가 제일 먼저 보인다. 세 살인 은수는 지금껏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한 최연소 참가자로 차임란 복지사와 남편 장성일 씨의 아들이다. 차임란 복지사의 어머니 윤건자 씨가 은수의 손갈질을 돕고 있었다. 어색할 법도 한 첫 인사가 수줍게 눈웃음을 짓는 은수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물들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궁금한 것은 오늘 펼쳐볼 이야기의 첫 부분이다. 차임란 복지사에게 남편과 만난 인연을 묻자 회상만으로도 환하게 웃는다. “이전 학교에서 근무할 때 친한 행정실 동생이 소개팅을 권했어요. 내키지 않아 거절했는데 무려 2년을 끈질기게 말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나간 자리에서 둘의 대화는 꽤 즐



거웠다. 날씨마저 좋아 산책도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 남편 장성일 씨도 아내 이야기에 동의한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얘기가 잘 통하니 함께 있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2014년 5월에 첫 만남을 가진 이들은 이듬해 3월 결혼했으니, 두 사람이 불붙은 속도는 주변을 몹시 놀라게 했다.

**가족이 있어 다행이었던 시간들**

결혼 이후의 삶은 참으로 바쁘게 흘러갔다. 2015년에 결혼한 후 2017년에 은수가 태어나고, 그 사이에 차임란 복지사는 휴직과 복직을 거치고, 남편 역시 휴직과 창업이라는 큰 변화를 겪었다. 온 가족이 분주한 일상을 보낸 것이다. 어머니 윤건자 씨 역시 바쁜 딸과 사위 대신 쭉쭉 자라는 은수를 건사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으니, 모두가 서로를 위한 애정과 배려로 뽕뽕 뭉치지 않았다면 결코 만만치 않을 시간이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치열하게 달린 덕분일까. 이제 제법 자란 은수와 침성대를 천천히 둘러보는 세 사람의 표정에는 여유와 미소가 넘쳤다. 이어 계림을 찾았다. 계림은 신라의 시조로 알려진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중 김알지의 탄생 설화를 품고 있는 곳.

계림에 들어서자 달라진 분위기에 모두가 탄성을 뱉었다. 침성대가 전형적인 관광지라면, 이곳은 고요하고 묵직한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한 눈에 봐도 수백 년 세월을 품고 있는 굵은 고목 이파리 사이사이로 햇빛이 투명하게 비치고, 숲 가운데는 졸졸졸 냇물이 흐른다. 함부로 베지 않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물푸레나무, 해나무, 단풍나무의 위용 아래서 엄마와 딸이 손을 꼭 잡은 채 산책을 한다.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며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니 켜켜이 쌓은 천 년 세월 안에서 가족 간 추억이 나무보다 단단한 결로 스며든다.

산책을 끝내고 찾아간 곳은 가족 공방 ‘썸스레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손거울과 카드지갑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가족으로 만든 사물로 가득 찬 공방을 신기해하며 둘러보는 어른들의 몸짓에서 아이 같은 설렘이 풍긴다.

만드는 과정은 까다롭지 않지만 꼼꼼한 손길이 필요했다. 손수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어머니가 딸을 돕고, 딸은 남편을 살피고, 남편은 다시 어머니의 솜씨를 결눈질하며 찬사를 보낸다. 유독 꼼꼼한 스킬을 보여주는 남편 장성일 씨의 손길에 더욱 눈길이 간다.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 우리뿐일까. 사방을 둘러봐도 새삼스럽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눈부시니 가족 여행지로서 경주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듯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대**

사랑하면 닮는다고 했던가. 웃는 모습이 매우 닮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임란 복지사가 꺼냈다.

“남편에게 가장 고마운 점은 저를 정말 많이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다혈질이고 발끈하는 성격인데 비해 남편은 늘 차분하고 온유해요. 사건이 생기면 전 흥분하는데 남편은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여주지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도 덩달아 정말 많이 유해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딸의 말에 맞장구치며 자신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사위 자랑을 슬쩍 보낸다. 은수가 태어난 뒤 아내와 육아를 함께 하기 위해 기꺼이 휴직을 한 장성일 씨에 대한 아내와 장모의 칭찬 세레가 이어지자 장성일 씨가 덩덤히 이야기를 더한다.

“아기 시절은 정말 잠깐이라 그 짧은 시간을 아이에게 다 쏟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도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당연히 집안일을 하시는 분이였기 때문에 제게 집안일과 육아는 큰일이 아니에요.”

이런 남편 덕분에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차임란 복지사는, 그래서 학교 업무에 더욱 큰 열정과 애정으로 임하게 됐다는 것도 이어 고백했다.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장성일 남편**

제게 아내는 늘 고마운 존재입니다. 가진 것 없고 나이 많은 저를 사랑해 주고 같이 살아주니까요.(웃음) 상담 복지 업무로 바쁜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업무를 불만 없이 해내는 아내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내 덕분에 특별한 여행을 했네요. 아름다운 계림에서 멋진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임란 대구포산초 상담복지사**

오늘 하루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고생하시는 어머니와 가족 여행 한 번 못 갔는데, 오늘이 어머니에게 큰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게 운명을 맡겨 준 사람이예요. 제가 하는 일을 늘 지지해주는 남편에게 사랑과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엔 시어머니도 꼭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윤건자 어머니**

오늘 경주에서의 하루,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식구가 다 같이 놀러 나온 건 처음인데 경주에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은수가 잘 적응하고 잘 놀고 잘 먹어 너무 좋았어요. 딸은 자랄 때도 속한 번 썩인 적 없는 기특한 딸이에요. 그래서 엄마지만 늘 옆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모쪼록 착한 우리 사위와 은수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장은수 아들**

“오늘 재밌었어요?”  
“... (끄덕끄덕)”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특히 은수가 태어난 이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졌지요. ‘조심해’라는 말보다 먼저 몸을 던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저의 변화가 신기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려운 아이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더 애뜻해졌죠.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속상하고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차임란 복지사.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인지, 아닌지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과 포장해 빛을 내도 덮을 수 없는 가짜 마음. 아빠와 함께 공방안을 조심조심 구경하는 은수의 뒤를 쫓는 차임란 복지사의 눈빛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다.

**아름다운 경주, 아름다운 가족**

경주 탑동에 위치한 오릉은 시조(始祖) 박혁거세와 알영 부인, 제2대 남해왕, 제3대 유리왕, 제5대 파사왕 등 총 5명의 분묘라 전해진다. 이곳에 도착하자 새파란 하늘과 연둛빛 잔디가 능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비행기를 날리는 아이, 풍선을 들고 뛰는 아이. 모든 것이 그저 그림 같다.

오릉에서 통통통 뛰어다니는 은수의 양손을 꼭

잡은 부부의 뒷모습을 윤건자 씨가 흐뭇하게 바라본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둔 윤건자 씨에게 차임란 복지사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장녀이자 동시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몸이 약했던 저를 대신해 동생 둘을 돌보고 집안의 외며느리인 제 뭍까지 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척척 해내는 딸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었죠. 그런 제게 은수의 탄생은 제가 딸에게 받은 것을 되 돌려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토록 소중한 딸을 보석처럼 아끼고 위하는 사위가 더없이 고맙다고 말하는 윤건자 씨가 천천히 세 사람의 뒤를 따른다. 그 뒤로 늦은 오후의 햇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따라간다.

언제나 미안하고 고마운 남편과 어머니, 그래서 말끝에는 늘 눈물이 섞이는 딸이자 아내인 차임란 복지사에게 오늘 하루가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이유는 바로 소중한 가족의 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은수가 다시 통통통 뛰어 달려온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잠깐의 가족이었던 우리에게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더니 꼬옥 잡아준다. 따뜻하고 말랑하다. 찰나의 행복이 오래 남는다.

**가족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첨성대**

경주시 인왕동에 위치한 국보 제31호. 신라 시대에 천문을 관측하던 건물로 알려져 있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으며 경주를 방문한다면 반드시 봐야 할 대표적 유적지로 꼽힌다. 봄에는 유채꽃과 튜립이, 여름에는 백일홍과 배롱나무 꽃이, 가을에는 핑크몰리가 만개해 여행객을 반긴다.

📍 첨성로 140-25



**계림**

첨성대와 반월성 사이에 있는 숲.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 설화가 깃든 곳이다. 숲에서 닭이 울었다는 데서 계림으로 불렸으며, 후에 국명으로 사용되었다. 신라의 신성한 숲이라 해 현 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으며, 100여 그루에 달하는 고목이 여전히 자태를 자랑한다.

📍 교동 일대



**삼미정**

모두부와 두부전골, 파전, 수육 등을 맛볼 수 있는 두부 전문점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위해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표고버섯을 잘게 다져 만든 파전도 별미지만 하루에만 120모 넘게 만드는 두부 요리가 베스트셀러. 두부를 만드는 콩은 전부 강원도에서 계약 재배한 것을 받아 직접 만든다.

📍 포석정길 4  
☎ 054-745-8761



**오릉**

사릉(蛇陵)이라고도 불린다. 《삼국유사》에 박혁거세가 승하한 후 7일 만에 그 유체가 다섯 개로 나뉘어 땅에 떨어지면서 이를 함장하려 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 그대로 다섯 군데에 매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통령과 달리 한적하고 고요하다.

📍 포석로 907  
☎ 054-750-8500



보츠와나에 와보면  
좋아하게 될 거예요

'보츠와나에서의 고군분투기'라는 제목을 짓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나는 고군분투한 적이 없다. 외롭게 살고 있지 않으며, 어떤 사명감에 사로잡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태평하게 살이나 찌우고 있다. '교육 봉사'라는 목적 아래 파견 온 것이지만 봉사에 반드시 희생과 고난이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적당한 급여를 받으며, 잘 챙겨 먹고, 새로 사친 친구들과 만족하며 살고 있다. 글·사진 이빈(대전용전초 교사)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면 보츠와나로**

인터넷에서 보츠와나(Botswana)를 찾아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몇 안 되는 잘사는 나라, 다이아몬드 채굴로 이룬 경제성장, 한국보다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 에이즈 감염률 세계 최고, 칼라하리 사막, 오키아노 삼각주, 초베 국립공원, 사파리, 코끼리 등.

막상 와서 살아보니 과연 살기 좋은 곳이다. 대부분 사람은 아프리카 하면 먼저 오지를 떠올리는데, 이곳도 도로가 잘 깔려

있고 고층 빌딩도 있다. 쇼핑몰이나 식당 같은 편의 시설도 적당히 갖춘 편이다. 영화관도 있고, <어벤저스> 같은 인기 영화는 개봉 첫날에 모두 매진될 정도다.

수도 가보로네(Gaborone)는 한국의 지방 중소 도시 정도의 규모다. 출퇴근 시간에는 어느 나라와 같이 차가 막히고, 매월 25일 월급날이면 쇼핑몰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런 분위기는 내가 사는 몰레폴롤레(Molepolole)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몰레폴롤레는 보츠와나 남부에 있는 소도시로 월급날의 마트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발 디딜 틈이 없다. 특히 금요일

일 밤이면, 시끌시끌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브라이와 술을 즐긴다. 브라이는 우리가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듯, 남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요리다.

방학 때는 카사네(Kasane)와 마운(Maun)에 다녀왔다. 이곳은 최근 보츠와나 정부가 가장 신경 써 개발하고 있는 관광단지라고 한다. 세계 최대 코끼리 서식지가 바로 이곳이고, 사파리를 즐길 수 있는 초베 국립공원도 있다.

3성급 혹은 4성급 호텔과 숙박 시설인 로지가 여럿 있고, 관광지답게 훨씬 다양한 메뉴를 내놓는 식당도 있다. 수도권은 느긋하게 살기 좋은 동네라면, 이곳은 복잡복잡 재밌게 살 수 있는 동네처럼 보였다.

반면 내가 사는 몰레폴롤레는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건조한 지역이라 키 큰 아몬드나무는 보기 어렵고, 키 작고 가시 돋친 부시만 드문드문 보인다. 차를 타고 출퇴근하자면, 도로가 깨진 곳이 많아 요리 조리 피해야 하며 운전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영구 단수 지역이라 물이 나오지 않는 집이 많다.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수도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근무 중인 학교도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라치면 물탱크에서 물을 길어 변기에 들이부어야만 한다. 다행인 건 몰레폴롤레 전 지역이 이렇지는 않다는 점이다. 병원이나 쇼핑몰, 식당, 관공서 등에는 수도가 설치돼 있어 물을 사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정말이지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집에도 물이 잘 나온다는 점. 집에서 10분만 걸어가도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이 많아, 정말 다행이라 여긴다.

**갈 길이 먼 보츠와나의 학력**

파견 나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학업 부진과의 싸움'이다. 근무 중인 학교에는 학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 이를테면 사칙연산 순서를 알지 못해 15×5-5+3을 75-(5+3)으로 계산하는 기적의 계산법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었다. 아니, 친구들이 있었다. 정답이라고 워낙 완강히 주장하기에 순간 '수학에도 문화 차이가 있나' 하고 잠시 혼란을 겪을 정도였다. 반복해 설명하고, 교과서를 들이밀고, 또 다른 참고 자료까지 제시해도 도무지 듣지 않았다. 도대체 고집들은 왜 그리 센지. 처음 의견 충돌을 일으킨 친구와는 2시간 넘게 설전





을 벌여야만 했다. 다른 친구들까지 설득하는 데는 3일을 소모해야만 했다. 다행히 몇몇 뚝뚝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현지어로 설명을 부탁하며, 설득해 나갈 수 있었다.

수학을 설명이 아닌 설득해야 한다는 사실이 놀랍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선생님이라는 것이다. 학생이 아니라 교사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감과 교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뿐이 아니다. 물의 순환 과정에서 승화도 일어난다는 점, 시험관에 췌조각을 넣고 췌조각이 잠길 만큼 물을 넣으면 기름으로 밀봉한다 해도, 이미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으므로 췌조각이 녹는다는 점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매우 일관되게 동일한 오개념을 보여 교사 양성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또 이 고집쟁이들은 명왕성은 2006년부터 태양계 행성에서 퇴출됐다는 것을 뉴스 기사와 책을 근거로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어느 누구

도 교재를 연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교사들이 이런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학년 학생들이 네 자릿수를 매끄럽게 읽지 못하며, 325+658 같은 세 자릿수 덧셈에서조차 정답률이 20%를 넘지 못했다. 분수는, 아 정말이지 분수는 절망이다. 이 같은 부진은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우리 학교가 지역 내 22개 학교 중 21위를 했다지만 대부분의 다른 학교도 합격률이 10%를 넘지 못했다. 참고로 문제의 절반을 넘게 맞춰야 합격으로 간주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 한 학기를 혼란과 놀람, 실망으로 보냈고, 그러고도 여전히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영양가 있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었다. 현재 한 반에 30명씩 두 반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 60명을 잘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더

효과적인 일은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학교장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교사부터 오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학교장에게 요청해 교직원을 불러 모아 연수를 했다. 연수를 통해 덧셈과 뺄셈은 같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명왕성이 왜행성(dwarf planet)이 된 까닭을 설명했다. 현지 교사들은 놀라울 만큼 무지하며 완고했다.

1학기 말 시험 문제를 해설하고 오개념을 교정하기까지 꼬박 3일이 걸렸다. 그러고도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는 교사가 많았다.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에게 오개념을 심어주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고집스럽게 이를 반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니 답답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내가 출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생각에 미쳤다. 학기말시험 문제는 지역 교육청에서 제작해 각 학교로 배부하는데, 그 학기말시험 문제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와 오개념이 녹아 있었다. 오타자는 실수라고 치지만, 대놓고 오개념을 조장하는 문제도 너무나 많았다. 2학기에 출제 위원, 아니면 적어도 검토 위원으로 참여하면 시험 문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시험지로 100여 개 학교, 수천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꼭 시도해볼 만한 일 같았다.

낯선 외국인에게 평가권을 나눠 줄지는 의문이다. 뜻대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한다 해도 또다시 그들과 설전을 벌이고 지리한 설명을 반복해야겠지만 시도해보는 일이다. 학교장에게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그리고 보츠와나 교육부에 우리 사업을 담당하는 분께도 메일을 보냈다. 그게 지난주다. 학교장께서 교육청에 연락해주었고, 중앙 교육부에서는 아직 어떤 지침을 주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근무해줘 고맙고 연락해보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2학기에는 시험지를 검토하며 한숨 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기대 이상의 만족**

생각보다 많이 얻었다. 보수도 파견 전보다 많고, 한국이라면 아마 평생 가져보지 못할 마당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재롱떠는 강아지도 생겼다. 무엇보다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처럼 빠듯하고 바쁘게 살지 않는 것이 좋다. 늦잠

을 자고는 머리를 안 감고 출근한 적이 몇 번 있을 만큼, 셔츠를 다려 입지 않은 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무심경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이 지루한 책을 읽을 만큼 따분한 일상도 정말 고맙다. 세상에, 얼마나 지루했으면, 대학원 다닐 때 읽다 만 논문들도 다시 꺼내어 읽어볼 만큼의 여유가 만족스럽다.

친구들을 자주 보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을 새로 사귀었고, 수년, 수십 년째 정착해 살고 계시는 한인들도 자주 만날 수 있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 한국이면 주말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불려 다녔겠지만 여기선 그럴 일이 없어 편하기도 하다. 간간이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잘 사냐며 안부 묻는 것만으로 1~2년은 건널 수 있을 듯하다.



**이빈 대전웅전초 교사**

지난 1월부터 조금은 느리고 답답한 이곳, 보츠와나에서 잘 살고 있다. 친구들과 가족은 왜 험한 데 가서 사냐며 아직도 잔소리를 하지만, 나의 삶의 질은 한국에 있을 때 보다 훨씬 좋다. 이곳 학생들이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것 말고는 더 바라는 게 없을 정도다.





## 必환경 시대, 쓰레기를 게임처럼 치우다

### SNS를 청정하게 만드는 트래시태그 챌린지

#### SNS에 담긴 청소 놀이 게임

알바트로스는 왜 죽었을까.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은 2m가 넘는 날개를 펼치고 바다를 건너던 새가 플라스틱을 잔뜩 먹은 채 죽어 있는 사진을 세상에 공개해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필리핀 정부는 극심하게 오염된 휴양지 보라카이섬을 6개월 동안 폐쇄했다. 깨끗이 청소한 뒤 재개장한 첫날, 관광객들이 내버린 쓰레기 더미는 관계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지구가 고통받는 가운데, SNS 한쪽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트래시태그 챌린지! 불평은 접어두고 우리가 직접 치우자. 게임처럼 즐기면서.

트래시태그 챌린지는 개인들이 자기 주변 공간부터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등장했다. 트래시태그란 공공 장소의 쓰레기(trash)를 치운 뒤 사진을 찍어 쓰레기를 치우

기 전 사진과 함께 SNS에 해시태그(#trashtag)를 달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2015년 9월, 야외 활동 전문가 스티븐 라인홀드는 캘리포니아의 산과 계곡에서 트레킹을 하다 페트병 등 100개가 넘는 쓰레기를 주웠다. 그는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아웃도어 의류 회사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쓰레기를 치운 뒤 사진을 SNS에 올리는 ‘트래시태그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 내가 100명을 설득해 이 챌린지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다시 그를 통해 1000명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바이런 로만이라는 사람이 SNS에 트래시태그와 함께 쓰레기를 치우기 이전과 이후 사진을 올리면서 이 챌린지는 다시 주목받는다. 그는 특히 할 일이 없어 때때로 하는 ‘지루한 10대들’에게 호소했다. 이것은 학교에서 시키니 억지로 하는 ‘봉사 활동’이 아니다. 마치 포켓몬을 잡으러 주변을



지난 4월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카페 내부에서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컵과 식기류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동안 너무나 쉽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온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이미 전 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 정부와 기업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패스트패션업체가 폐의류를 수집해 재활용하기도 하고, 유통업체가 배송용 박스와 스티로폼을 직접 재수거하기도 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필(必)환경 시대인 것이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챌린지 게임이다. 이 게시물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최근까지 7만 건이 넘는 ‘청소 놀이’ 보고가 이루어져왔다. 생일을 기념해 가방 4개 분량의 쓰레기를 주운 사람, 차량 여행 도중 도로 주변의 쓰레기를 모은 가족도 있다. 파나마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에 버려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정리한 모습도 올라왔다.

한 참가자는 말한다. “보통 나는 이런 식으로 선행을 보여주기 위한 온라인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트래시태그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동안 루게릭병의 고통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얼음을 몸에 끼얹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등의 활동이 SNS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 의도와 달리 유명인의 이벤트로 이미지가 퇴색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클릭 한 번으로 공유하고 마치 임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자기만족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트래시태그는 단순한 홍보성 캠페인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운 후 곧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 환경과 우리, 선택이 아닌 필수

트래시태그 챌린지는 미국, 우간다, 영국, 멕시코, 필리핀 등지로 번져나갔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이 오히려 쓰레기 투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알리고 있다. 특히 부탄 청소녀들

이 불탑 주변을 청소하면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올려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세계적인 청정 국가로 알려진 부탄마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니, 이 지구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 처한 것일까?

일본 나오시마는 한때 ‘쓰레기 섬’이라 불렸다. 그 주변 세토우치는 교통의 요지이고 아름다운 관광지였는데, 1960년대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 때문에 인근 12개 섬이 엄청난 산업 쓰레기로 뒤덮였다. 특히 구리 제련소가 있던 나오시마는 악취를 풍기는 유해 쓰레기가 산을 이뤄 주민들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 ‘쓰레기 섬’이 1989년 시작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계기로 ‘예술 섬’으로 탈바꿈한다. 그런데 섬 안에는 산업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재료로 만든 리사이클 아트가 전시되어 있다. 쓰레기로 뒤덮였던 과거와 깨끗해진 현재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래시태그 캠페인의 정신을 선구적으로 실현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까마득한 기억이 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한국의 기적 같은 4강 진출만큼이나 세계인을 놀라게 한 것은 거리 응원이었다. 특히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서 깨끗하게 쓰레기를 치운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어쩌면 트래시태그 캠페인의 원조는 한국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넘어 생활하는 매 순간에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해야 할 때다. 우리 스스로에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용기를 주자.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이 노래의 제목은 ‘보물’, 노래처럼 그때 그 시절 우리는 ‘보물’ 같은 하루를 보냈다. 아무런 놀잇감이 없어도 친구들과 맨몸으로 부대끼며 노는 것이 일상이었다. 시간이 지나고야 알았다. 그 놀이로 몸과 마음 모두를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추억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다.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물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글강나은 사진 한상무

**놀이 줄 아는 교사들이 키우는 놀이 줄 아는 아이**

‘놀이 줄 아는’ 교사들을 만난 곳은 교실이 아닌 운동장이었다. 모두 운동장에 민속놀이 판을 만들고 있었다. 한 손에는 페인트 통, 다른 한 손에는 롤러를 들고 이리저리 선을 그리고 색칠하는 사람들. 다들 신나게 노는 것처럼 장난기 어린 웃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운동장 트랙이 거대한 민속놀이 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서대기 교장이 화성청계초로 부임하면서다. “서대기 교장 선생님은 워낙 민속놀이로 유명하세요. 이번에 우리 학교로 오시면서 민속놀이 교사 연수를 하셨어요. 제가 1970년대 태생이라 민속놀이에 대한 추억이 많지만, 알고 있는 놀이는 한정적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연수를 받으면서 더 많은 민속놀이를 배우고 싶어 대한민속놀이연구회에 가입했지요.” 신입 회원인 김연희 화성청계초 교사의 말처럼 서대기 교장의 민속놀이 사랑은 명성이 자자하다. 그가 민속놀이에 빠진 것은 미래의 인재에 대한 신념 덕분이다.

“놀이는 신비한 힘을 지녔습니다. 실제로도 민속놀이를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부딪치고 살을 맞대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죠. 또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며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가운데 민주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도 생깁니다. 결국 미래에는 가슴이 따뜻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할 겁니다.” 이는 서대기 교장만의 생각이 아니다. 영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교육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좋은 놀이에 주목해왔다. 공부와 놀이를 적절히 병행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는 생각에서다. 서대기 교장이 현재의 민속놀이연구회를 만든 데에는 동료 교사이자 배우자인 이연자 교사의 역할이 컸다. 부부는 늘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인성 교육과 학습 동기 유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길지 않아요. 특히 초등학교 수업은 놀이 중심이어야 교육 효과가 크죠. 그러던 중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우리나라 민속놀이였어요.”



*“내성적인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여럿이 모인 곳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제 기분도 좋아져요.  
놀이를 통해 유대 관계도 생기거든요.”*



이연자 교사는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라며 미소 짓는다. 2000년에 ‘두레연구회’로 창립한 연구회는 대한민속놀이연구회로 성장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5년 연속 우수 교과 교육회로 선정된 것은 물론 경인일보, 경기교육뉴스, 소년조선일보 등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지금까지 민속놀이 전파에 힘쓰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교사가 즐거워야 아이들이 즐겁다. 이는 민속놀이에 빠진 교사와 아이들에게서 분명 느낄 수 있다. 김태화 화성청계중 교사는 우연히 여름방학 때 민속놀이 직무 연수에 참가했다가 민속놀이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제가 어릴 때 하던 놀이를 오랜만에 하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어찌나 좋아하던지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게다가 민속놀이는 놀이에 그치지 않는다. 수업에 접목하자 지루해하는 아이들이 사라졌다. 몸을 이용해 다양한 놀이 방법을 익히며 더욱 집중한다. 도형의 넓이는 칠교놀이로 배우면 금방이다. 슬래 어린이가 허리를 굽혀

인간 뽀름이 되는 왕대표 놀이는 뽀름보다 재미있다. 더 많은 교사가 민속놀이를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대기 교장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에는 실뜨기 지도안, 산가지 놀이 수업 학습 과정안, 야외 놀이 지도안, 승경도 가이드북 등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갖추고 있다. 신혜란 안산 경일초 교사 역시 수업 중간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적절한 놀이를 활용한다.

“민속놀이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예요. 교육적으로도 좋고 소근육을 발달시키기도 좋은 공기놀이도 자주 하는데요, 저학년은 바보공기를, 고학년은 천재공기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꼬끼리공기, 박수



공기 등 변주도 가능하죠.”  
아이들은 민속놀이를 통해 서로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운다. 게다가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전봉심 수원 신흥초 교사는 학기 초에 아이들이 친해지려면 “민속놀이만 한 게 없다”라고 힘줘 말한다.  
“특히 내성적인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여럿이 모인 곳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제 기분도 좋아져요. 놀이를 통해 유대 관계도 생기거든요.”  
임경 화성청계초 교사는 요즘 많은 관심을 받는 뉴 스포츠와 민속놀이를 말하며 민속놀이의 매력을 강조한다.  
“체육 수업을 뉴 스포츠 중심으로 한참 시도한 적이 있었

어요. 그런데 뉴 스포츠는 대부분 도구가 필요하고, 도구 자체가 규칙이 됩니다. 더 많은 창의적인 놀이로 바꿀 수 없죠. 하지만 민속놀이는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어 늘 재미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아이들이 놀이 규칙을 기발하게 정하거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민속놀이를 통해 그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겁니다. 어릴 때 우리처럼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 아이들은 놀이할 때 많은 것을 배운다. 정해진 규칙 없이도 모두 모여 자신들만의 규칙을 스스로 세운다. 그렇게 아이들은 놀이를 함께 만들어가며 비로소 ‘우리’가 된다.

# 떠나요, 팔도강산 자전거길로

따뜻한 봄바람이 지나자 초록빛으로 물든 초여름이 다가온다. 지금이다,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빌 때가! 페달을 밟고 천천히, 때로는 생생 달려보자. 너의 미학과 롤러코스터를 동시에 즐기다 보면 어느새 아름답고 시원하게 펼쳐진 자전거길에 환호할 당신을 마주할 것이다. 글 정수는 일러스트 형운

## 섬 전체가 자전거를 위한 길 신안 자전거길

전국 섬의 4분의 1에 달하는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 신안의 모든 땅이 섬인 만큼 천도천색의 다양한 길이 펼쳐져 있다. 들녘과 논, 밭 그리고 염전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 해안길을 비롯한 농로, 양식장 길 등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 바다와 염전을 함께 볼 수 있는 해변이 촘촘하게 끝없이 펼쳐져 최고의 자전거 여행 코스로 꼽힌다.

예상 거리 51km

## 백제의 숨결 따라 옥천 향수 100리 자전거길

초보자도 어렵지 않은 무난한 코스. 아름다운 강과 호수, 농촌 마을을 둘러보며 향수를 느껴보자. 기존 도로를 이용해 자전거길을 만들어 더욱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는다. 시인 정지용의 생가와 문학관 등 정지용의 시향을 따라 마을길이 펼쳐진다. 경사 80도의 길을 오를 땀 숨차지만 조금만 지나면 시원하게 펼쳐진 금강 줄기를 만날 수 있다. 금강을 따라 합금교를 건너 멋진 벽화가 가득한 합금마을도 둘러보길 추천한다.

예상 거리 50km

## 너의 미학 청산도 자전거길

매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에 빠지지 않는 곳. 청산도에 도착하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소박함 속에 매혹의 길이 펼쳐진다. 슬로길은 청산도 주민들의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되던 길이지만 현재는 자전거길로 매우 유명해졌다. 느리게 걷는 미학의 길이지만 만만하게 생각했다간 큰코다친다. 생각보다 언덕을 넘는 험로가 꽤 많아 산악자전거로 이용하길 추천한다.

예상 거리 22km

## 터널과 철교를 건너다 남한강 자전거길

팔당대교에서 출발해 양평, 충주 탄금대까지 옛 중앙선 폐철도 구간을 달리는 자전거길. 부지런히 달리다 보면 강줄기와 울창한 숲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양평 폐철도 구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못 쓰게 된 옛 중앙선 철길을 자전거길로 새롭게 활용한 것. 기차가 다니던 9개의 터널도 볼 수 있으며 북한강철교를 자전거로 건너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예상 거리 45km

## 시처럼 그림처럼 담양호 자전거길

영산강 자전거길의 첫 시작. 담양댐부터 영산강 하구 독까지 남도 풍경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대나무 숲 향기와 함께 자전거를 타보자. 인공호수지만 규모가 작지 않아 본격적인 라이딩을 시작하기 전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다. 담양의 자랑인 메타세쿼이아길과 담양대나무 숲길은 꼭 방문할 것! 시처럼 그림처럼 유유자적한 황홀한 자전거길이 펼쳐진다.

예상 거리 50km

더 자세한 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PARIS



## 파리 *Paris*

### 다시 처음의 우리

개선문 전망대에 올라 프랑스 파리를 바라본다. 저 너머 센강 한가운데 최초의 파리가 탄생한 시테섬이 있다. 그 섬 동쪽에 매일 아침 첫 태양이 걸리던 첨탑- 우아하게 솟아 신과 인간을 잇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었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사진 양정훈 외



세상에 사랑과 낭만의 도시가 어디냐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같은 곳을 말할 것이다. 예술과 패션 도시가 어디냐고 물어도, 명품과 귀족 도시가 어디냐 묻거나 시민 의식이 태동한 도시가 어디냐 물어도 답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신과 인간, 문학과 예술, 귀족과 평민, 백인과 흑인, 자본가와 노동자가 뒤섞여 이룬 도시. 그곳은 파리(Paris)다.

**살면서 꼭 한 번은**

나의 베트남 친구 하잉은 반드시 파리여행 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함께 공부하고 일하며 정을 쌓은 벗이자, 같이 외로운 아시안 유학생 처지였던 그녀는 영국에서 학업을 마치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프랑스를 택했다. 하잉은 그때 짐싸며 꼭 한 번은 파리에 살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몇 달 후 그녀가 있는 파리를 잠시 방문했을 때 나는 조금 놀랐다. 도시의 번두리, 낡고 오래된 건물 꼭대기에 좁디좁은 방 한 칸. 그녀는 오전에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활이 당시 내 눈에 안정되어 보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나 보다. 단지 그곳이 파리라는 이유, 그걸로 그녀는 충분했다.

최근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살아보기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짧은 기간 여러 도시, 심지어 여러 나라를 무슨 사진 찍듯 걸핌기로 훑는 투어를 벗어나 최대한 오랜 시간 한 지역에 머물며 더 깊고 풍부하게 그곳의 삶을 들여다보는 여행이다. 어느 숙박업체 광고에서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고 말해 큰 인기를 끈 바로 그 카피처럼 말이다. 파리를 길게 설명해 무엇 할까. 여행사나 온라인 서비스 기업, 연구 기관에서 살아보기 여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대부분 1위를 차지하는 도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이 단 일주일, 단 한 달이라도 살아보길 꿈꾸는 도시. 휴양지가 아님에도 유명 모델, 예술가, 영화인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몰려들고, 파리 시민을 일컫는 파리지앵(parisien)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수식어보다 직관적으로 낭만과 예술, 자유를 함의한다.

**명품과 혼돈(?)의 도시**

파리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에투알 개선문(Arc de Triomphe)이나 샹젤리제 거리(Champs-Élysées)가 아닐까 싶다. 개선문 전망대에 올라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길게 잡고 촬영하면 사진 속에서 자동차들이 열 꼬리를 남기며 상하좌우로 뻗어나가는 것이 마치 중세 이전 전차의 환영을 보는 것 같다. 그 열 꼬리는 개선문에서 거대한 10차로의 샹젤리제로 이어진다. 이름값 몸값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명품 브랜드들이 전세계 매장 중 가장 신경 써 꾸민 쇼파 부티크가 대로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난 것을 보면 패션이나 브랜드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눈이 다 휘둥그레지기 일쑤다. 이곳은 10유로도 안 되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1000유로, 1만 유로의 사치를 꿈꾸는 사람들의 거리다.

샹젤리제만 보면 파리는 온갖 럭셔리로 채워진 것 같다. 그러나 그 반대편 혼돈을 동시에 품은 도시이기도 하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당장, 저 개똥 무더기! 파리의 첫인상 중 가장 강렬한 게 뭐냐고 물으면, 개인적으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뒷골목에서 마주치는 수북한 개똥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내가 처음 파리에 갔던 20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주택가 길바닥 사방팔방이 개똥 지뢰였다. 제 냄새 까먹지 말라고 찰과닥 운동화 뒤꿈치에 묻어주신다. 혈통 좋은 강아지 천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역시나 냄새도 아주 끝내주신다.



1. 파리 고유의 낭만과 자유는 노천카페에 있다. 노천카페에 앉아 여유로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묘미다.
2. 샤요궁(Palais de Chaillot)서 바라본 에펠탑(Eiffel Tower) 풍경.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은 밤이든 낮이든 아름답다.
3. 파리에서의 여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수많은 경계를 뛰어넘은 연인을 만나며 파리가 결국 사랑의 도시라는 데 마주한다.





### 무엇이 파리를 파리답게 하는가

물론, 파리 혼돈의 핵심이 개똥은 아니다. 사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보다 훨씬 진지하고 깊은 혼돈에 관해서다. 지난 몇 달간 노란 조끼로 상징되는 프랑스 시민의 집단행동과 정치 불복종운동이 마스크를 댔다. 파리 시민들의 시위는 우리와 많이 달랐다. 훨씬 거칠고, 강렬하고, 저항적이었다. 집기가 날아다니고, 상점 유리가 깨지고, 자동차가 불탄다. 한 시민은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민중의 힘으로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을 세운 뜨거운 피가 여전히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며 울먹였다. 경제 문제 해결, 노동 조건 개선, 빈부 격차 해소. 집단마다 시위마다 구호는 달랐지만, 사실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불행하다. 구조를 개선하라!” 시위가 정점일 때 프랑스 국민의 지지는 80%가 넘었다. 시위대에는 노인이, 학생이, 주부와 교사가 함께했다. 나는 그 장면을 여기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의 저항을, 혼돈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힘껏 응원한 것 같다. 폭력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의미다. 파리는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는 도시다. 자본의 상징

이라 할 수 있는 초고가 브랜드가 즐비한 동시에, 시민의 저항과 노동자의 투쟁이 미래의 길을 내는 도시다. 그 혼란이 어찌면 파리의 생명력이고 역동이라고 나는 믿고 싶었나 보다.

### 경계 바깥의 사랑

내게 개똥 다음으로 강렬했던 파리의 인상을 말하라면 다양한 인종의 사람이라 답하겠다. 그 기원에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의 비애가 있지만, 긴 역사의 강을 건너며 이제는 프랑스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다. 거리는 다른 어떤 다국적 도시보다 수많은 인종의 사람으로 붐빈다. 오후에 파리 근교로 향한 여행-루이 16세가 자객지심을 감추기 위해 지은 베르사유(Chateau de Versailles)의 정원에서 인종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오랫동안 끌어안고 놓지 않는 장면을 바라보다 코끝이 다 시큰해졌다. 만날 수 없었던 먼 조상의 아이들이 맺는 사랑이었다. 파리에 오면 여행자들은 먼저 몽마르트(Montmartre)니, 루브르(Le musée du Louvre)니 하는 곳을 가장 먼저 만날 테지만, 여행이 좀 더 깊으면 이내 술한 몸과 문화와 정신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사랑하게 된 다양한 연인을 보



4.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본 파리의 야경 노트르담 꼭대기에 있는 괴물 모양 석상 가고일이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5. 노트르담 대성당은 사람들의 구원과 갈망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다'는 파리의 문장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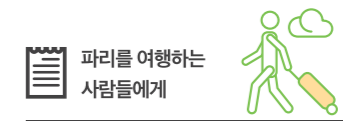


게 된다. 그들의 포옹에, 키스에 닿는다. 경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시, 혹은 앞으로 누군가를 경계 없이 사랑하게 될 사람들의 도시. 한 명은 피부색이 희고, 다른 한 명은 피부색이 검은 늙은 부부가 서로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에펠탑 뒷골목을 걷고 있다. 저들은 세상 무엇으로부터 서로를 감싸고 지키며 여기에 이르렀을까.

###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파리가 탄생한 곳이라고 불리는 시테 섬(Cite Island)의 동쪽 강변. 신에게 닿고 싶었던 인간의 간절함이 쌓아 올린 노트르담 대성당(Cathedral of Notre-Dame de Paris)이 서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로, 여기서 '노트르담'이란 성모 마리아를 의미한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을 한참 바라봤다. 오랜 시간 신과 인간을 이어준 집, 이 성스러운 장소가 주는 울림은 어찌면 신이 출현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절망하고, 울고, 구원을 찾은 수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의 갈증에 신이 항상 대답을 주지는 않을 것이나, 그와 상관없이 이 기도, 기도하는 자의 내면이 이미 어떤 숭고한 힘을 지닌 게 아니겠나, 나는 생각한다.

그 뒤로 한참 시간이 지났다. TV로 다시 만난 파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난 4월 15일,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에 휩싸여 붕괴되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저 숭고한 신과 인간의 역사가 너무 쉽게 허물어졌다.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그날, 사고를 아파하며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한 파리의 친구는 이렇게 포스팅했다. “다시 신에게로.” 나는 그에게 되묻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이런 뜻이 숨어 있으리라 짐작해본다. 다시 신에게로. 신을 향했던 숭고하고 찬란한 우리의 내면으로. 어떤 시련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모두의 노트르담으로.



시테 섬에 관해 얘기해보면, 명실공히 파리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서는 물론, 지금은 비극에 둘러싸여 있지만 노트르담 대성당, 생트샤펠 성당 등도 자리하고 있죠. 워낙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건물이 많아 지나치기 일쑤지만, 자세히 보면 길거리 건축물 하나하나가 문화재급입니다. 개인적으로 파리에 가장 좋아하는 곳은 마레 지구(Le Marais)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지역을 떠올리면 비슷할까요? 젊음과 자유, 문화와 쇼핑의 거리죠. 언제 방문해도 유쾌한 곳입니다.

## 아이들의 꿈을 담은 창의 공간

대 구 유 가 중 학 교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는 직장·배움터·놀이터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자 쾌적한 곳이어야 한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유가중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이자 미래를 위한 교육 공간임에 틀림없다. 글 이경희 사진 장병국



### 공간이 인재를 만든다

컬러풀하다. 다양한 색상으로 어우러진 이색적인 디자인 경관에 지나가던 시민의 눈길이 멈춘다. 멀리에서도 유가중이 눈에 띄는 이유다.

학교 내부로 들어서면 따사로운 별이 반긴다. 채광이 좋은 공간은 넓은 복도를 만나 시원한 시야를 선물한다. 곳곳에 노란색으로 색칠한 벽면이 더없이 유쾌하다. 컬러와 입체감이 가득한 느낌의 건축물. 유가중은 '창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3월 개교한 대구 유가중은 올해 비로소 3학년까지 짝 들어찬 새내기 학교지만, 그동안 보여준 능력과 열정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 못지않다. 먼저 '2017년 전국 초·중·고·대학 우수시설학교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지역사회에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유가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학생들이 '찾아다니는 수업'을 한다는 사실이다. 쉬는 시간마다 해당 수업 교실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는 아이들을 따라가 보면 세종대왕실, 주시경실, 이항실 등 위인의 이름을 담은 교실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연히 교실 분위기는 각 과목에 특화해 전문적 느낌이 물씬 풍긴다. 아이들 역시 이동하는 내내 주위를 환기하며 교과목을 준비한 상태로 책상 앞에 앉는다. 당연히 수업 내용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 창의 공간에서 창의하다

유가중을 본격적으로 둘러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특히 '창의 공간'을 마주하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1층부터 4층까지 중앙 공간이 트인 이곳은 계단과 학생들의 다양한 전시품으로 꾸며져 있다. 중앙에 탁구대 두 대가 놓여 있는 것도 이채롭고, 바로 앞에 도서관이 위치한 것도 특이하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도서관 앞 교실까지 전부 창의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형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 등에 더없이 유용합니다. 많은 분이 찾아와 가장 주의 깊게 보고 감탄하는 부분이에요."

서은희 교장의 말에 힘이 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나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탁구대에서 탁구를 치고, 창의 공간 계단에 엮드려 숙제를 한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한 멀티 공간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마음껏 행동하며 자율성을 느낀다.

"아이들을 으스스한 곳이나 폐쇄된 곳으로 숨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의 밝은 곳으로 자꾸 불러내야 합니다."

서은희 교장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밝은 공간이라고

“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해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쾌적한 곳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길 바라요.  
 ”



강조한다. 사춘기의 정점에서 어쩌면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중학생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며 크게 웃는다. 창공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즐거움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도서관은 전부 통창으로 이뤄져 있다. 침묵과 밀폐라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조건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이곳은 유가중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밝고 친근한 공간에 누구나 지나가다가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간다. 나란히 붙어 있는 교실에서는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하고, 도서관 안에도 수업이 가능한 탁자와 의자가 마련돼 있으니 유가중은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하루 한 번씩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만 50명 이상일 만큼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공간이다. 전국 단위 백일장에서 수많은 입상자를 배출하는 저력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체에 모서리 라운딩 공법을 적용해 설계했고, 애초부터 셉테드(CPTED;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법) 설계를 시도해 화장실 칸막이 높이를 조정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 페인트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한 것 등 곳곳에 아이들을 위한 섬세한 배려가 특별하게 녹아든다. 또한 옥상에서는 태양열과 지열 시설을 이용해 사용 전기량의 70%를 자가로 생산한다.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해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쾌적한 곳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길 바라요.”

아이들의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 함양, 학습, 즐거움까지 전부 공간 안에 차곡차곡 담은 유가중학교. 유가중의 새로운 시도들이 대한민국 신설 학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길 기도한다.







최우형



김슬기

## 장애인 교원의 행복한 가르침을 위하여!

「2019 무장애 교실 프로젝트」 진행  
한국교직원공제회 최우형 & 김슬기 사원

*서울 경일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김미연 교사는 시각 장애인이다. 1급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도 교사 임용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뒤늦게 꿈에 도전해 32세의 나이에 선생님이 되었다. 점자를 사용하지 않아 글자를 확대해 책을 읽으며 수업을 준비하는 김미연 교사의 책상에는 입용 초, 사비로 구입한 독서 확대기가 자리하고 있다. 교직에 몸담은 세월이 벌써 10여 년. 교사로서 관록이 쌓일수록 그녀의 눈이 되어주는 독서 확대기는 자꾸 낡아만 갔다. 보조기기가 없으면 수업을 하지 못해 걱정이 쌓여가던 순간, 「무장애 교실 프로젝트」가 김미연 교사의 고민을 해결해줬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서확대기를 지원받은 그는 덕분에 교단에 서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시금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진행되는 「무장애 교실 프로젝트」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교육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다. 무장애 교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전략기획실 최우형, 김슬기 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와 의미는 무엇인가

**최우형**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한다'는 미션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교육청과 유관 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교원이 적잖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했다. 보조기기는 대부분 고가여서 사비로 구입하기에 부담이 크고, 기계의 특성상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 ㉡ 작년과 비교해 올해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김슬기** 작년에는 2017년 희망나눔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부금, 공제회 사회공헌 사업비 등 8200여 만원을 지원했다. 60여 명의 교원이 신청해 그중 22명에게 도움을 주었다. 올해는 사회공헌 기금으로 2억원 정도를 편성해 40여 명의 교원을 도울 예정이다.

### ㉢ 지원받을 교원을 선발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

**김슬기** 중증 장애를 가진 교원을 우선 선발하려 한다. 장애인재단 전문가들께서 직접 보조기기가 왜 필요한지 사연을 보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주로 어떤 교육 보조기기를 지원하는가

**최우형** 작년에는 시각·청각·뇌병변·지체장애 교원에게 전자칠판,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음성송수신기 등을 지원했다.

**김슬기** 중증 500만원, 경증 300만원 선에서 수요에 맞춰 지원한다. 특정한 공학 기기만 지원하는 등의 제약은 없지만 교육 환경 개선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은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교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해달라

**최우형** 감사 전화를 비롯해 사업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평소 사용하던 독서확대기가 수명을 다했지만 너무 고가라 구입하기 어려워 휴직까지 고려했는데, 마침 「무장애 교실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연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김슬기** 사례집을 보면서 교육 보조기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비장애인이란 대개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들에게는 신체의 일부로, 기기가 없으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므로 더욱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 ㉥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최우형** 교육 보조기기 면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문의 전화를 받아도 속 시원히 답변해드리지 못해 죄송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하시는 많은 분께 혜택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무척 아쉽다.

### ㉦ 앞으로 계획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다면 알려달라

**김슬기** 올해 공제회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나눈다'를 테마로 사회공헌 사업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우형** 사회공헌에 큰 뜻을 두고 비단 장애인 교원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보조기기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에 놓인 장애인 교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앞으로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여유로운 슬로 여행도 컬러풀한 축제 여행도 The-K호텔과 함께



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느림의 미학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일단 호텔 내에 게르마늄과 탄산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유황천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또 자동차로 반경 1시간 이내에 성삼재, 광한루, 화엄사, 화개장터 등 유명 관광지가 포진해 있다. 남원 춘향제, 남원 바래봉 철쭉제, 곡성 세계장미축제 등 인근에서 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의 경우 공제회원은 롱스테이 혜택으로 묵는 기간이 3~7일 이내라면 17평 객실을 일~목요일 4만원(금·토 별도)에 이용할 수 있다. 8일 이상 묵는다면 롱스테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17평 객실을 일~목요일 1만원(금·토 별도)에 쓸 수 있다. 게다가 장기 투숙하는 회원에게는 호텔 내 텃밭, 세탁 시설, 야외 바비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또 숙박 일수에 따라 조식 할인, 셔틀버스 운행, 문화 공연 관람 등의 특전도 준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 061-783-8100

## 지리산·설악산·경주 3개 호텔 롱스테이 요금제 도입 공제회원, 최저 1만원에 숙박



The-K설악산가족호텔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말 그대로 설악산 품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일 때면 '피미지'로도 좋을뿐더러 계절마다 옷을 갈아 입는 호텔 주변 풍경도 The-K설악산가족호텔에 머물고 싶게 하는 요소다.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대포항과 물치항 역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으며,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속초 중앙시장과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낙산사도 20여 분이면 닿는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의 경우 공제회원은 롱스테이 혜택으로 묵는 기간이 3~7일 이내라면 20평 객실을 일~목요일 2만5000원(금·토 별도)에 이용할 수 있다. 8일 이상 묵는다면 롱스테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20평 객실을 일~목요일 1만원(금·토 별도)에 쓸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리모델링 후 새단장한 사우나, 세탁실, 노래방, 바비큐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장기 투숙할수록 지역 특산물을 추가 제공하는 특전도 준다.

-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470-7
- 033-639-8100

제한된 일정 탓에 험레벌떡 눈도장 찍고 다음 장소로 바삐 떠나는 여행은 이제 지났다. 보다 긴 호흡으로 한 장소에 머물며 작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이른바 '롱스테이'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지리산·설악산·경주의 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The-K호텔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롱스테이 할인 혜택을 내놓았다.



The-K호텔경주

천년고도 경주, 조밀함과 다양함으로 이곳만큼 롱스테이에 제격인 곳이 또 있을까? 보문단지에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pH9.12의 천연 알카리성 온천수가 용출되는 스파월드를 비롯해 150여 개의 온돌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공제회원을 위한 롱스테이 요금에 따라 묵는 기간이 3~7일 이내라면 일반실을 일~목요일 6만5000원(금·토 별도)에 머물 수 있으며, 8일 이상 묵을 경우 일반실을 매일 5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장기 투숙할 경우 식음료, 스파월드, 세탁 시설 등을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면부 객실 우선 배정 및 전담 직원의 윈스톱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근의 다양한 테마시설 할인 혜택도 준다.

-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
- 054-745-8100

※The-K지리산·설악산·경주 호텔의 롱스테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호텔별 객실 사정에 따라 예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 전 문의해야 한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구분	월~목	금	토	일	
17평	3~7일	4만원	5만5천원	8만원	4만원
	8~30일	1만원	2만5천원	5만원	1만원
20평 (후면)	3~7일	5만원	6만5천원	9만원	5만원
	8~30일	2만원	3만5천원	6만원	2만원
23평	3~7일	7만원	9만원	13만원	7만원
	8~30일	4만원	6만원	10만원	4만원

The-K설악산가족호텔

구분	월~목	금	토	일	
20평	3~7일	2만5천원	4만5천원	6만원	2만5천원
	8~30일	1만원	3만원	4만5천원	1만원
29평	3~7일	5만5천원	8만원	10만원	5만원
	8~30일	2만5천원	5만원	7만원	2만5천원

The-K호텔경주

구분	월~목	금	토	일	
일반실	3~7일	6만5천원	8만원	9만원	6만5천원
	8~30일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준특실	3~7일	10만5천원	11만원	11만5천원	10만5천원
	8~30일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 야구가 있어 인생이 즐겁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프로야구 즐기기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회원이 늘어나는 것도 딱 이맘때다. 딱! 소리와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인천 SK행복드림구장 프로야구 관람 데이! 그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글 이경희 사진 황윤하



**다 함께 야구 보러 갈래요?**

5월 9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이 떠들썩하다. SK와이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자 교직원공제회의 ‘The-K행복서비스 프로야구 즐기기’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꽤 남았지만 야구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꽤 촘촘하니 바쁘다.

야구장 3번 게이트 앞 부스에서는 벌써 교직원공제회 인천지부 직원들이 모여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당첨 회원을 위해 티켓을 배부하고, SK와이번스 응원봉과 생수도 함께 나눠줄 예정이라 박스를 정리하는 손길이 더없이 분주하다. 오늘 초대받은 공제회원은 총 600명. 요즘 SK와이번스의 경기력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경기장을 찾는 회원들의 기분이 더 유쾌할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아니나 다를까. 일찌감치 도착한 회원들이 싱글벙글 웃으며 하나둘 부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한 회원, 동료와 함께 온 회원, 모녀지간, 부자지간, 모자지간 등 다양한 관계로 어울린 공제회원이 모였다.

이벤트에 당첨된 행운의 기운을 한껏 받아서일까? 티켓을 받기 위해 줄을 선 공제회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환하고 밝다. 특히 오늘 준비된 1루 응원석 좌석을 확인하고 좋아하는 이가 많았다. “자리가 너무 좋다!”는 것이다.

뜻밖의 이산가족(?) 상봉 광경도 심심찮게 마주쳤다. “어머,



선생님!” “아유, 이게 얼마 만이에요!” 서로 바쁜 일상에 치여 얼굴 보기가 힘들다가 야구장에서 마주친 인연이라니! 옆에서 지켜보는 인천지부 직원들까지 덩달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한동민 선수의 유니폼을 갖춰 입은 송웅석 회원(남양주 평내고)은 여자 친구와 함께하는 야구장 데이트에 한껏 들뜬 모습이다. “저보다 여자 친구가 SK와이번스 광팬”이라며 같이 응원하기 위해 커플로 맞춰 입은 유니폼을 손짓한다. 송웅석 회원은 “남양주에서 인천까지 조퇴를 하고 달려왔다”며 종종히 경기장 안으로 사라졌다.

친구와 함께 온 김혜련 회원 역시 “야구장 나들이는 처음”이라며 “교직원공제회 덕분에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기뻐했다.

**함께 관람하고 함께 응원하는 즐거움**

본격 게임이 시작되기 전 전광판에 짧지만 아주 특별한 영상이 하나 떴다. 교직원공제회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이 그것이다. 1루 쪽에 단체로 모여 앉은 공제회원 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온 것은 물론이다.

오늘 SK와이번스의 선발투수는 김광현 선수, 한화이글스는 워워 서폴드 선수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와 응원 소리가 이어진다. SK와이번스 응원석이 바로 코앞인지라 공제회원들의 환호에 더욱 흥이 실린다. 5연승을 달리고 있는 SK와이번스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 응원 소리도 드높다.

“내친김에 6승 가즈아~”

시타와 시구 행사가 끝나자 본격 게임이 시작됐다. 1회에서 선취점을 먼저 올린 건 한화이글스다. 모두가 탄식을 내뿔었지만 다시 심기일전해 응원을 시작한다. 그런데 회원 중 유독 비어져 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공제회 가족이 눈에 띄었다. 한화이글스 팬이라. 덧붙여 오늘 이 자리에 교직원공제회 The-K SNS기자단으로 참석을 했다고 한다. “회원이 아닌 기자로 참석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프로야구 즐기기 이벤트에 처음 참석했는데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동안은 아기가 너무 어려 함께 오지 못하다가 이런 기회에 온 가족이 나들이를 할 수 있어 즐겁네요.” 김두환 회원(동두천 이담초)이 아내와 함께 함박웃음을 짓는다.

**스트레스 아웃! 활력 세이프!**

경기는 점수가 날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진행됐다. 경기 공수 교체 사이마다 관객과 즐기는 게임이나 신나는 치어리더의 응원 덕분에 경기에 몰입하는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다. 양 팀이 똑같이 안타를 10개씩 치면서 치열한 승부를 펼쳤지만 도루와 실책에서 한화이글스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

8회 말까지 2 대 0으로 경기를 끌고 가던 한화이글스가 결정적 승부를 낸 건 9회에서다. 제러드 호잉 선수가 결승타를 친 것. 결국 한화이글스는 오선진, 김희성 선수의 홈런을 포함 6 대 1로 승리를 거뒀다. SK와이번스 응원석에서는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 나왔지만 어디 경기가 오늘뿐이라. 이내 간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본 한화이글스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면서 축하를 했다.

시원한 봄밤이 그렇게 저물어갔다. 함께 모여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옆자리 사람과 끌어안고 치맥의 즐거움을 만끽한 하루.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맛본 이 행복이 또 한 달을 살아낼 힘을 주는 것이리라.

“몇 달치 쌓인 스트레스, 확 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공제회원들의 시원시원한 인사와 함께 저만치 달이 떠오른다.



**MINI INTERVIEW**



**오세ung-gap 교직원공제회 인천지부 팀장**

The-K행복서비스 프로야구 즐기기는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인천지부에서는 300명(인 2매)을 추첨해 총 600명을 모셨습니다. 함께 모여 즐기는 야구장 행사는 늘 좋은 반응을 얻는데 오늘 역시 많은 분이 기뻐해주셨습니다. 티켓과 함께 응원봉과 생수도 드리니 더욱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제회 회원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야구장에서 스트레스도 확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sun-hwa 회원(인천 삼목초)**

저와 남편은 야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한 번도 온 가족이 함께 야구를 직관한 적이 없었어요. 평소 이벤트 신청을 잘 안 하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교직원공제회 덕분에 좋은 기회를 맞아 가족 모두가 야외로 나오니 정말 좋습니다. 목청껏 응원하고 열심히 즐겨 더욱 추억에 남네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hyo-jeong 회원(인천 석남중)**

평소 교직원공제회 이벤트에 자주 응모하고 또 자주 당첨되는 편인데(웃음) 이번에도 당첨되어 기쁩니다. 전 야구장에 처음 와봐 기분이 남다른데, SK와이번스를 응원하는 남자 친구는 저보다 더 신이 나서 달려왔더라고요. 교직원공제회에 덕분에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행사를 기대할게요.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사랑입니다

5월 1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 전국의 교육가족과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함께하는 스승의 날 기념 공연이 오후 3시와 6시에 걸쳐 열린 것. 특별한 공연에는 1000명이 넘는 교육가족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소중한 시기를 함께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진 김희진



포토 존에서 즐겁게 사진 찍는 교육가족들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원봉사자가 함께 어우러진 다소니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리브락 공연단 울동팀 천사들의 감쪽한 무대, 류정필-한가영이 만든 아름다운 클래식 무대



쿠키와 음료도 드려요!



교육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교직원공제회 차성수 이사장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더뮤즈가 함께한 뮤지컬 갈라쇼!



마지막으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며 커튼콜



# 예를 다해 온 정성으로 마지막 길을 모십니다

The-K예다함상조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상조회사가 있지만 The-K예다함상조를 아는 사람들은 오직 예다함을 꼽는다.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을 오직 신뢰와 예로 모시는 예다함에 대한 신뢰와 애정 때문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 오직 유족의 입장에서 유족과 고인만을 위해 헌신하는 예다함의 차선희·김나영 의전진행팀 수원지부 장례지도사와 만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 ㉔ 한국의 장례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실감하십니까?

**차선희 의전진행팀 수원지부 장례지도사(이하 차)** 한국 사회가 변화하면서 장례 문화 역시 가파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대가족 구성원 모두는 물론, 마을 전체에서 품앗이 형태로 ‘큰일’을 치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문 상조업체가 장례에 관한 대소사를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요. 요즘에는 핵가족, 소가족이 많고, 전반적으로 조문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삼일장이 아닌 이틀장이나 하루장을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많은 조문객을 받는 대신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곡을 하면서 슬픔을 극대화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가족끼리 고인과 추억을 회상하며 웃으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 예다함



## The-K 예다함상조

김나영 의전진행팀 수원지부장례지도사



차선희 의전진행팀 수원지부장례지도사



㉔ **부실 상조회사에 대한 대중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잇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 사고들 때문인데요. 부실 상조회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김나영 의전진행팀 수원지부 장례지도사(이하 김)** 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상조회사가 생겨났지만 사실 유가족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상조회사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실 상조회사가 도산하거나 줄폐업하면서 유가족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무거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재무 상태를 반드시 살펴보고 말씀드려요. 뉴스나 신문에 상조업체의 경영 부실과 폐업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는 만큼 상조회사가 탄탄한 자본금을 갖췄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을 평안하게 모시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㉔ **그렇다면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일반인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차** 저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으로 신뢰도를 꼽습니다. 예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1금융권 6개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상조회

사로 꼽힙니다. 또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의외로 계약 내용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광고나 홍보성 글을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만기가 되면 당연히 환급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만기 시 납입금이 소멸되는 상품을 내놓는 업체도 많습니 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속았다는 기분이 들면 안 되잖아요.

㉔ **예다함이 다른 상조회사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입니까?**

**김** 예다함은 수의와 관, 봉안함 등의 장례용품을 공정한 입찰 통해 고품질의 물품만을 엄선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장례 종료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환불해주는 ‘페이백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유가족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전 어르신들은 수의를 미리 장만해놓으면 장수한다고 믿어 스스로 준비해두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 점을 고려해 미리 유가족이 수의를 준비해두셨다면 품목 교체가 아닌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 여러분이 예다함에 보내주시는 신뢰가 바로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보다 상대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겉치레보다 마음으로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을 지니겠습니다.  
 나는 신뢰와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다함입니다.

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다함의 장례지도사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김 예다함에서는 대부분 장례지도학과를 전공하고, 전문 교육을 받아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장례지도사를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례처럼 지불해오던 수고비나 노잣돈을 유도하는 일 없이 교직원공제회의 이름을 걸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다함 장례지도사들은 대학에서 장례 절차 및 지도에 대해 충분히 배웠지만 예다함에 입사한 뒤에도 유가족을 대할 때의 말투와 자세 등 서비스 위주의 교육을 한번 더 받습니다. 저 역시 장례지도사는 장례는 물론 유가족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㉕ 장례식장에서 젊은 여성 장례지도사를 만나면 놀라시는 유가족이 꽤 많을 듯합니다. 여성 장례지도사에 대한 편견에 속상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김 가끔은 젊은 여성 장례지도사를 기피하는 유가족도 계세요. 하지만 저희는 전문 인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꼼꼼하게 밀착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장례지도사라는 편견을 갖고 미심쩍어하셨지만 장례를 진행하면서 꼼꼼한 서비스와 보살핌에 감동받으시는 유가족이 정말 많았

습니다. 저는 점차 여성 장례지도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요즘은 오히려 여성 장례지도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입관하기 전에 씻겨드리는 과정에서 여성 장례지도사를 원하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더 섬세하고, 꼼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주는 부분이 있으니 주목해 찾기도 하세요.

㉖ 두 분이 장례지도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어떤 것입니까?

차 저는 외동딸인 고객의 어머니 장례 준비를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가족이 없다 보니 유가족께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 역시 제 가족처럼 장례 준비에 열성적으로 나섰어요. 마지막에 그분께서 '혼자 큰일을 치르려니 두려웠는데 덕분에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요. 사실 아무리 친척의 장례를 곁에서 지켜보고 조문을 많이 가봤다고 해도 직접 장례를 치러야 하는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많이 당황하게 돼요. 그럴 때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예를 다해 보내드릴 수 있도록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장례지도사의 역할이에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지요.

김 저는 장례지도사란 고인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지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가 '남편이 사고로 얼굴을 많이 다쳤는데, 이렇게 잘 보내줄 수 있어서 고맙다'면서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 직업을 택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죠. 유가족들이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고인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 일에 책임감과 긍지를 함께 느낍니다.

㉗ 예다함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김 저희 예다함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고 알림부터 마지막까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정성을 다해 고인과 유가족을 모시겠습니다. 예다함을 선택하길 잘했다 하는 안도감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시오.

<The-K 매거진> 6월 즉석당첨 이벤트

# 소원을 직여보~

어째서 내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오지 않을까!

이번 달만은 부디  
당첨되고 싶어요~



이벤트 기간 6월 1일 ~ 6월 30일



SPC 모바일상품권  
10000원권(100개)



CU 편의점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200개)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Tall(500개)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6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7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인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 대상에 송이호 경기 새얼학교 교사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부가 공동주관한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이 5월 31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송이호 경기 새얼학교 교사 외 각 부문별 9명의 수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우수 교원에게 주어지는 근정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됐다. 부상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이,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에는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심사위원장인 이종현 전 교육부 학교혁신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동료 등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헌신해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아 우리 시대의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 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과 교육부의 ' 으뜸교사상'을 통합해 제정한 최고 권위의 스승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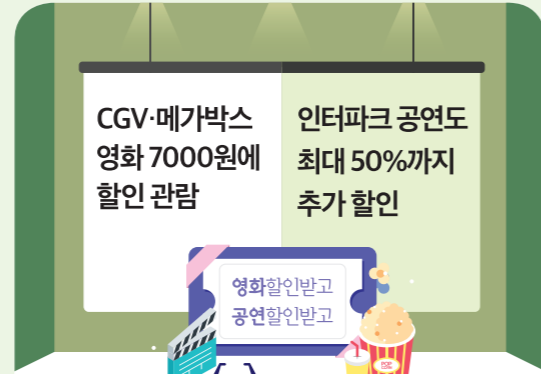
수상자 명단		
대상	송이호 경기 새얼학교 교사	
부문별 수상자	유아	김정례 경기 솔빛유치원 원장
	초등	이인희 대구남덕초등학교 수석교사
		구수진 인천약산초등학교 교사
	중등	박기영 경기 이현고등학교 교사
		배덕진 강원 간동중학교 교사
		민재식 울산 삼일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문섭 강원 사북고등학교 교사
	대학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전상표 영진전문대학교 교수



### S2B(학교장터), 2018년도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2018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난달 권역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동안 S2B 이용 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 등의 기준에 따라 청렴 계약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S2B 청렴 계약 우수기관으로 시·도교육청 부문에는 충북·부산·경남교육청이 선정됐으며, 교육지원청 부문에는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외 14개 기관, 각급 학교 부문에는 서울강신초 외 33개 학교 총 52개 기관이 선정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제주영송학교는 6년 연속,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대전동아미스터교, 창원기계공업고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제회원은 앞으로 CGV와 메가박스에서 할인된 금액 7000원으로 영화를 예매할 수 있다. 이 할인은 영화관별로 카드사 중복 할인도 추가로 가능한 혜택이다. 이용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문화공연'에서 발급받은 할인 예매권 번호를 CGV와 메가박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결제 시 쿠폰 번호로 등록해 이용하면 된다. 1회에 1인당 2매씩 할인 예매권 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사용 가능하다. 단, 2D 일반관만 할인 가능하며, 일부 극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회원증 지참 시 영화관 현장에서 매점 코드를 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CGV·메가박스 상시 할인과 별도로 CGV·메가박스 영화예매권을 공제회원에게 증정하는 The-K행복서비스 '씨네 & Joy' 행사도 매월 개최된다. 6월 중순경 CGV 영화관람권을 공제회원 1만 명에게 2장씩, 총 2만 장을 선물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참조

한편, 인터파크에서도 공연별 예매 시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 '문화공연'에서 연결되는 '인터파크의 교직원공제회 전용 페이지'에서 공제회원 인증 번호를 입력 후 예매하면 된다. PC로만 이용 가능하며, 공연별 최대 10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 The-K호텔서울, 북바(Book Bar) 오픈

The-K호텔서울은 최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바(Book Bar)를 본관 1층 우체로 옆에 오픈했다. 1~2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하고 안락한 공간과 3~4인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국내외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 취미 등의 다양한 분야의 도서 600여 권을 비치했다. 맥주, 와인 등의 음료와 함께 크래커, 과일, 샐러드 등의 안주류도 1만원대부터 판매하고 있어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The-K호텔서울은 인근에 시민의 숲이 위치한 도심 속 휴양소로 인기가 높다. 하계 시즌을 맞아 9월 28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라이브 음악과 함께 다양한 바비큐와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바비큐 비어 파티'를 진행하고 있다(일·월요일, 우천 시 제외). 가격은 화~목요일 성인 4만2000원이며, 일부 메뉴가 추가된 금~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성인 4만8000원이다. 소인은 요일 상관없이 2만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원, K멤버십회원, 호텔 투숙객, 20인 이상 단체고객, 서초구민은 10% 할인 혜택이 있다.

☎ 02-526-9556



### The-K호텔경주, 6월 특가 이벤트

The-K호텔경주는 6월 프로모션으로 스탠다드 객실, 조식 2인, 웰컴링크 2잔을 주중(일~금) 11만2000원, 주말(토요일, 공휴일 전일) 13만8000원에 제공하는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부가세 포함). 또한 초여름을 맞아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커피숍 아이리에서는 칼라만시 에이드, 아마씨견강미숫가루, 망고 스무디, 눈꽃인절미빙수, 눈꽃망고 요거트빙수를 출시했고, 한식당에서는 가오리 밀면, 녹두삼계탕, 한방전복삼계탕을 맛볼 수 있다. ☎ 054-745-8100

### 라마다프라자 제주, '스프링 피크닉' 패키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스프링 피크닉 패키지를 출시했다. 스탠다드 객실과 밥소퐁 에코 키트 세트, 뷔페 레스토랑 또는 제주 다이닝에서 즐길 수 있는 2인 조식 식사권, 수영장·피트니스룸 2인 이용권으로 구성했다.

이번 패키지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아름다운 제주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GO GREEN 필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보인다. 특히, 밥소퐁 에코 키트 세트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에코백과 베이커리 슝 델리의 샌드위치, 커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1만5000원 이용권을 포함했다.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박 이상 투숙하는 공제회원에게는 객실 미니바 속 제품을 선물한다.

☎ 064-729-8100



### The-K지리산가족호텔, 준(June) 이벤트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6월을 맞아 공제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우선 호국보훈의 달 이벤트로 자녀 중 입영예정자 또는 군장병을 둔 공제회원을 위해 조식, 온천, 매실차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자녀의 입영통지서 또는 휴가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호텔 인근의 구례 전통 5일장(매월 3·8일)까지 무료픽업서비스를 실시한다. 1일 1회씩 운영하며, 사전예약으로 선착순 1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 061-783-8100





# 힘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 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